

연세의료원소식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NEWS

발행인 금기창 편집인 운영남 T 02.2228.1074~5 F 02.2227.7783 severance@yuhs.ac

“번치 않는 사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후원행사 ‘I AM SEVERANCE’ 개최

500여명 참석, 미래 의료 문제 해결 위한 집중거액모금캠페인에 동참 요청

의료원이 1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 볼룸에서 미래 의료 문제 해결과 의료 발전을 위한 후원 행사 ‘I AM SEVERANCE’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원이 추진 중인 제2차 집중거액모금캠페인 ‘THE GREAT FUTURE’의 비전과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의 의료자선 문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요 기부자와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미래발전위원장), 권혁은 IS동서 회장,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을 비롯해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와 천영태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신영증권, 한국토지신탁 등 기업인, 의료진, 재단 관계자, 금융계 인사, 동문, 교계 관계자, 자선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의료원은 미국의 독지가 루이스 세브란스 씨의 기부로 설립된 이후 국내외 후원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미국 록펠러 재단이 세운 차이나메디컬보드와 주한미군의 도움을 받은 한국 전쟁 이후 의료인프라 재건, 세브란스 새 병원 건립 모금, 2009-2016년 한국 의료계 최초 집중거액모금캠페인 등 다양한 모금캠페인을 전개하며 국내 의료자선 문화를 선도해 왔다.

2022년 말부터는 ‘THE GREAT FUTURE’ 캠페인을 시작하며 미래 의료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나서고 있다. ‘THE GREAT FUTURE’ 캠페인은 단순한 기부금 조성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건강 문제를 고민하고 신의료기술, 난치질환 극복 등 미래 의료 분야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2030년 2월까지 총

모금액 5000억원을 목표로, 자산가, 기업, 동문, 교회, 셀럽 등 각계각층의 참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3000억원(약 61%) 이상을 모금했다.

이번 행사에서 금기창 의료원장은 의료원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초격차 진료 체계 구축을 통한 최상급 4차병원으로의 안착, 의료 지식뿐 아니라 융합적 사고와 협력정신을 갖춘 Y형 의료인재 양성 등 의료원이 추구하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어 다섯 명의 교수가 여러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미래 의료를 소개했다. 김현철 AI의료사업단 정책기획단장은 의료원의 사명 실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의료 AI를 제시했으며, 김어수 세브란스병원 연구부원장은 첨단재생의료의 미래 가치에 대해 심도 있게 소개



했다. 이어 송영구 연세대 바이오헬스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는 강남세브란스 새병원 건립과 더불어 바이오헬스 연구 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윤락 세브란스병원 기획관리실장과 천근아 어린이병원 원장은 수부이식과 자폐스펙트럼장애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의료 분야를 안내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비전을 공유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의료계에 새로운 자선 모델과 사회적 연대 방향성을 제시했다”면서 “의료원은 의료기술 발전을 넘어 인류의 미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기관으로 역할을 더욱 확장하고 더 많은 이들과 미래 의료의 더 나은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월을 넘어 다시 만난 의·치·간호대 동문들

추억과 우정 나눈 141주년 재상봉 행사

연세대 창립 141주년을 맞아 그리운 옛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각 대학 동문들은 교정을 찾아 학창시절의 추억을 공유했다. (관련 화보 8면)

의과대학

9일 의대를 찾은 졸업 50주년 동문과 가족들 46명, 25주년 동문 28명은 환한 미소를 띄고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2026 재상봉 행사는 동문들간 반가운 인사로 시작했다. 이날 윤인배홀에서는 양인철 교목실장의 기도와 함께 금기창 의료원장과 이재범 총동문회장의 환영사 후 최재영 의과대학장의 인사 말씀으로 식순이 이어졌다.

이후 졸업 50주년 대표 김일영 동문(76년 졸)과 25주년 대표 민경협 동문(01년 졸)의 동문소개 순서가 있었다. 각각 학창 시절 활영한 사진과 동문들의 에피소드, 현재 근황 등을 전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기부금 전달 순서도 있었다. 김일영 동문이 졸업 50주년 동문을 대표해 홍광표 동문의 20억원을 포

함한 20억원(우측 관련 기사)을, 민경협 동문이 25주년 동문이 모은 4억 4000만원을 의대 신축기부 등을 위해 모교에 전달했다. 이번 모금액은 역대 최고액이다.

행사를 마친 뒤 50주년 동문들은 강릉으로 추억 여행을 떠났고, 25주년 동문들은 이어진 본교 행사에 참여했다.

치과대학

치대는 같은날 5층 서병인홀에서 졸업 50·25주년 동문 재상봉 행사를 진행했다.

차정열 교무부학장의 사회로 정영수 학장과 윤홍철 동문회장이 동문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치대가 발전해 온 역사를 소개했다. 재상봉 50주년 김성욱 대표(76년 졸)와 25주년 오민석 대표(01년 졸)는 동문 소개와 함께 오랜만에 모교를 찾은 답사를 전했다. 이날 50·25주년 동문은 각각 치과대학 110주년 미래기금(발전기부금) 5000만원과 동문회 발전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행사 후 동문들은 치대와 병원, 치의학박물관 등 우리나라 치의학자 양성 요람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간호대학

간호대는 8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재상봉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 50주년, 25주년, 15주년을 맞은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현경 간호대학장과 김미정 동창회장은 환영사와 축사를 통해 모교를 향한 동문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후원에 감사를 전했다.

50·25·15주년 재상봉 동문들은 간호대학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또 동문 소개와 축하 공연을 진행하며 학창 시절의 추억을 나눴다.

행사 다음 날에는 50·25주년 재상봉 동문들이 간호대학을 방문했다. 이현경 학장은 간호대의 주요 발전 현황과 미래 비전을 소개했으며, 동문들은 발전한 교육 환경과 현장을 둘러봤다.

세란병원 홍광표·이영숙 가족 20억원 약정

의과대학 신축기부금으로 5억원 먼저 전해



세란병원 홍광표, 이영숙 가족이 최근 의과대학 신축기부금으로 총 20억원을 약정하고 5억원을 먼저 후원했다.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홍광표 병원장, 이영숙 여사, 아들 홍지용·홍지완 형제 부부와 금기창 의료원장, 최재영 의과대학장, 운영남 대외협력처장, 박시영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장 등이 참석했다.

홍광표 병원장은 “모교를 방문할 때면 학생, 레지던트 시절이 떠올라 항상 설레는 기분”이라며 “졸업 50

주년을 맞이해 연세의대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야될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모교가 발전하는 모습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홍광표 병원장님의 졸업 50주년을 축하드리며, 뜻깊은 기부를 결정해주신 모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후원금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최고의 의과대학을 성공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의료기기정보 실시간 통합 플랫폼 '프리즘' 전격 가동

전 병동 환자 상태 변화 초 단위 확인 시스템 개발...이상 징후 의료진에 즉시 전달

세브란스병원이 입원환자의 모든 건강 신호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사전에 악화 징후를 잡아내면서 의료진이 즉각 대응할 수 있어 환자 안전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입원 병동에서는 최대 8시간 간격으로 환자의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를 측정해 왔다. 측정 시간 사이에는 환자의 상태 변화를 바로 알기 어려워 응급상황에 치료가 지연될 수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브란스병원은 의료솔루션 기업 ACK와 전 병동 모든 환자의 주요 건강 지표를 24시간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의료진에 즉시 전달하는 새로운 의료 시스템 '프리즘(PRISM)'을 구축해 이달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건강 수치를 한눈에 개별 정보를 한 곳으로'

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 2월 의료기기 정보통합IT를 구축해 병원 내 다양한 의료기기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심박수, 혈당 등 여러 의료기기에서 측정하는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환자의 생체 신호를 파악하려면 의료기기 별로 각각의 모니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프리즘은 의료기기 제조사마다

데이터 형식과 전달 방식이 다르더라도 데이터 송출 언어를 표준화해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진은 제조사와 무관하게 환자 건강 정보를 수집해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본다'

입원 환자 모니터링 패러다임 변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가장 큰 변화는 '간헐적 확인'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최대 8시간 간격으로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환자의 생체 데이터가 24시간 수집돼 이상 징후 발생 즉시 의료진에게 전달된다.

이는 단순한 속도 개선이 아니라 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변화다. 문제 발생 후 대응하는 사후 대응(reactive care)에서,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대응하는 선제적 관리(proactive care)로 전환된 것이다. 이런 변화는 특히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성이 있는 환자 관리에서 큰 효과를 보인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
프리즘은 환자의 상태 변화를 연속적으로 분석해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위험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박수 증가나 혈압 저하와 같은 위험 변화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즉시 알림이 발생하고, 의료진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그동안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료진 대응까지 시간지연이 발생했지만, 통합 시스템에서는 이 간격이 크게 줄어들며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환자 상태는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 몇 분 차이가 치료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특히 세브란스병원은 7명의 전문의, 15명의 간호사로 구성된 신속대응팀 '위세이브(WeSave)'를 3교대로 운영 중이다. 신속대응팀은 주치의와 병동 간호사가 함께 데이터를 24시간 확인하며 이상 신호 발견 즉시 해당 병동으로 파견된다. 병동 의료진이 잠시 다른 업무를 하는 순간에도 신속대응팀은 쉬지 않고 입원환자의 상태를 지켜본다. 이렇게 병동 의료진과 신속대응팀은 더욱 촘촘한 감시망을 만들어낸다.

호흡기내과 병동에 입원 중이던 70대 환자 A씨의 경우 새벽에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프리즘이 이를 감지했고, 신속대응팀이 3분 만에 현장 도착했다. 검사 결과 호흡부전 악화 가능성이 확인돼 바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했고 상태 악화를 막았다. 또 심장내과 병동에 입원 중이던 50대 환자 B씨는 혈압 저하와 심박수 감소가 실시간으로 확인돼 의료진이 5분 내로 현장 검사와 약물 치료로 곧장 대응하며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실시간 모니터링은 환자 상태 변화를 놓치지 않고, 중증 악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의료진의 업무 환경도 바뀐다' 협업과 업무 효율 개선

이번 시스템은 환자 안전뿐 아니라 의료진의 업무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환자 데이터가 자동으로 기록·공유되면서 반복적인 수기 입력 업무가 줄어들고, 데이터 오류 위험성도 낮아졌다.

모든 의료진이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협진 과정이 더욱 빠르고 정확해졌다. 야간 근무나 당직, 병동 외부에서도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의료진의 대응 범위가 크게 확장됐다. 환자와 가장 가까운 데서 근무하는 간호사도 환자 상태 변화를 놓칠 수 있다는 부담이 줄어들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

'병원 전체를 하나로'

AI 통해 환자 상태 변화 예측도
프리즘은 특정 병동에 국한되지 않고 병원 전체로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를 연

결하고, 병동 간 환자 건강 수치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병원 전체 환자 상태를 하나의 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다.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병원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기반이 된다.

세브란스병원은 향후 이 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기술과 연계해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의 상태 변화를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 발생을 줄이고,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병원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은 "의료기 데이터 통합은 환자 안전을 위해 단순한 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근본을 바꾸는 변화"라며 "24시간 전 병동의 모든 환자 건강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은 심각한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즉각 대응하겠다는 세브란스의 의지 표현"이라고 말했다.

연세의학대상에 김동욱 교수(학술)·문은수 동문(봉사)

연세대학교는 9일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창립 141주년 기념식과 함께 우수 교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우수 교원은 학문적 성과와 사회봉사를 통해 의과대학의 명예와 위상을 높인 동문과 전·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연세의학대상 학술부문에 의대 김동욱 교수(생리학)(사진

왼쪽), 봉사부문에 문은수 동문(의대 97년 졸)(사진 오른쪽)이 선정됐다.

김동욱 교수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성 질환 세포치료제 개발, 질병 기전·유전자 교정 연구 등을 선도하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교수는 세계 2번째, 아시아에서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hESC) 유래 도파민 전구 세포

를 파킨슨병 환자에게 이식한 임상시험의 안전성과 예비 효능을 Cell에 보고한 바 있다.

문은수 동문은 우리 기관에서 수련을 마치고 2007년부터 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에서 활약했다. 2012년 교수직을 사직한 후 지난 10여년 간 해외 난민과 의료 취약 계층을 대상



으로 의료 봉사와 지역사회 돌봄 사역을 수행하고, 청소년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활동했다. 이런

활약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보건 향상, 공동체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알렌의학교육상에 김재우 교수

의대 김재우 교수(생화학·분자생물학)가 13일 의과대학 회의실에서 제13회 알렌의학교육상을 수상했다.

김재우 교수는 CDP 2023 교육과정 취지에 맞춰 기본의학교육과정에 기본-심화 교육체계를 반영했다. 기본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교육을 설계하고, 심화 과정은 최신 연구를 접하며 기본기에 바탕을 둔 학습 경험을

키우는 동시에 지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했다. 특히 심화 과정은 기본학습과 달리 강의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학생 수준을 고려한 논문 선정과 과제 발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런 우수한 강의력과 체계적인 교과목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의대 우수업적 교수상 2회, 연세대 우수업적 교수상(의학 교육 분야)을 수

상한 바 있다.

이외에도 대사 질환과 암 대사 기전 연구를 통해 의학 발전에 공헌해왔다. 기초의과학 연구의 핵심인 선도연구센터(MRC) 센터장을 두 차례 역임하며 국내 기초의학 생태계를 이끌고 있다.

한편, 의대는 2013년부터 교육 분야에 헌신하고 학생과 동료 교수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육자를 선정해 올바른



교육 문화를 조성하고자 알렌의학교육상을 운영 중이다.

알렌의학교육상 심사위원회는 학생과 동료 평가와 평판, 교육 관련 기여

도, 피추천인의 전문분야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는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상금 1000만원을 수여받는다.

장내 미생물 유래 물질, 뇌 통해 체중·혈당 조절



김기우

리잘 산토스

양동주

유상희

치대 김기우, 리잘 산토스, 양동주 교수, 유상희 조교(구강생물학) 연구팀은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인 부티르산이 뇌 시상하부 신경세포의 구조를 통해 체중과 혈당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IF 15.7)에 게재됐다. 부티르산은 장내 미생물이 식이섬

유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대표적인 단쇄지방산으로, 소화·면역·내분비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전신 대사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조절자로 주목 받고 있지만, 뇌에서의 작용 기전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대사 항상성을 조절하는 핵심 부위인 시상하부에 주목했다. 시상하부는 에너지 소비, 호르몬 분비 등을 조절하는 중추로, 기능이 저하될 경

우비만과 당뇨 등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신경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일차 섬모가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연구팀이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마우스 모델에 부티르산을 다양한 방식(복강 주사, 경구 투여, 뇌실 주사)으로 투여한 결과, 투여군은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 대비 약 15% 체중이 감소하고 식이 섭취량도 약 2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당 조절 능력 역시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분자 수준 분석에서는 시상하부 신경세포에서 일차 섬모 형성과 관련된 유전자(Rfx2, Rfx3 등)와 구성 단백질(Ift20, Ift54, Ift88, Kif3a/b)의 발현이 증

가했으며, 실제로 시상하부 주요 영역인 궁형핵과 복내측핵에서 일차 섬모 형성이 촉진된 것이 확인됐다. 반면, 식욕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AgRP 뉴런에서 일차 섬모를 제거한 마우스에서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티르산 투여에도 체중 감소나 혈당 개선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신경활성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부티르산의 대사 조절 효과가 시상하부 AgRP 뉴런의 일차 섬모를 통해 작동함을 의미한다. 전기생리학 분석에서도 부티르산은 AgRP 뉴런의 활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지만, 일차 섬모가 없는 경우 이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혈액 속 엑소좀 단백질로 대장암 조기 진단 가능해



김한상

한윤대

의대 김한상(내과학), 한윤대(외과학) 교수, 서유라 대학원생 연구팀은 코넬대 의대 데이비드 라이든 교수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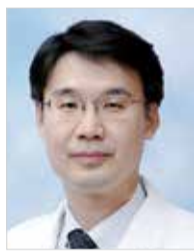
과 대장암 환자 혈액과 조직에서 분리한 엑소좀 단백질을 분석해 대장암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규명된 바이오마커를 통한 진단 검사 결과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세포 외 소포체 저널(Journal of Extracellular Vesicles, IF 14.5)에 게재됐다. 엑소좀은 세포가 분비하는 직경 약

80~150nm 크기의 소포체로, 단백질과 핵산 등 생물학적 정보를 담아 혈액을 통해 전신을 순환한다. 암 환자에서 분비되는 엑소좀은 종양의 특성과 전신 상태를 반영할 뿐 아니라, 종양과 다른 장기 사이의 상호작용에도 관여하는 정보 전달체로 알려져 있다. 대장암 환자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엑소좀 단백질 역시 조기 진단 바이오마커일 뿐 아니라 향후 신약 개발을 위한 치료 표적 후보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팀은 대장암 환자 223명의 임상 검체에서 혈액 샘플 90명과 수술 조직 샘플 50명을 포함해, 종양조직과 비종양성 대장조직, 수술 전후 혈액으로부터 엑소좀을 분리·추출하고 단백질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대장암 조직에서 유래한 엑소좀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단백질 745종을 확인했고, 혈액 유래 엑소좀에서는 대장암 환자에서 증가한 단백질 166종을 찾아냈다. 특히 대장암 유래 엑소좀 단백질들은 혈관생성, mRNA 스플라이싱, TGF-β 신호전달

등의 발생과 진행에 관여하는 생물학적 경로와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연구팀은 이 가운데 혈액으로부터 대장암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단백질을 다시 선별해, 대장암 진단에 유용한 10개 단백질 패널을 도출했다. 효소면역분석법(ELISA)으로 추가 환자 319명에서 검증한 결과, 이 패널이 90% 이상의 민감도로 대장암을 구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단백질들은 수술 6주 후 70% 이상 환자에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단순한 진단 바이오마커를 넘어 향후 예후 예측 지표로도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희귀질환 크라베병, 유전자 편집으로 치료



의대 조성래 교수(재활의학)와 융합보건의료대학원 서정화 교수 연구팀이 서울대의과대학 생화학교실 배상수 교수와 함께 유전자 교정을 통해 크라베병 발병 기전을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게놈메디슨(Genome medicine, IF 11.2)에 게재됐다. 크라베병(Krabbe disease)은 뇌와 신경을 보호하는 수초가 망가지는 희귀 유전질환이다. 지방 성분인 갈락토실 세라미이드를 분해하는 효소(GALC)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발생하는 것으로 신경독성 대사물질인 사이코신(psychosine)이 쌓여 수초 형성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뇌 속 신경 연결망이

손상돼 신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뇌백질 장애를 유발한다.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는 상황이다. 연구팀은 아데닌 염기교정기(ABE)의 크라베병 적용 가능성을 평가했다. 연구팀은 크라베병을 유발한 마우스 뇌실 안에 아데닌 염기교정 유전자가 위를 주사해 아데닌을 구아닌 염기로 교체하는 것을 시도했다. ABE 크기가 바이러스 운반체보다 커 ABE를 두 조각으로 나눈 후 세포 내에서 접착 단백질

질을 이용해 다시 하나로 붙였다. 완성된 염기교정기는 가이드 RNA의 안내를 받아 목표 유전자 위치로 이동하고, 유전자기위가 교정할 위치를 찾아 변이 유전자를 교정했다. 치료 5주 후 마우스에서 갈락토실 세라미이드 분해 효소 활동이 확인됐고, 사이코신 축적도 감소했다. 조직염색, 자기공명영상, 전자현미경에서 뇌의 수초가 회복된 것도 확인됐다. 마우스 체중과 뇌 무게 회복은 물론 수명까지 길어졌고, 운동기능은 2배 이상 향상해 정상의 약 65% 수준까지 도달했다.

조성래 교수는 “아데닌 염기교정은 DNA를 자르지 않고 아데닌을 구아닌으로 정밀하게 교체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로서 DNA를 자르는 기존 편집술보다 안전하고 정밀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글로벌 유전변이 데이터베이스(ClinVar)를 통해 전체 크라베병 환자 중 아데닌 염기교정이 적용될 수 있는 변이를 가진 비중은 30% 정도였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이번 연구 결과는 아데닌 염기교정을 이용한 유전자 편집 기술이 크라베병에 대한 치료법으로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의대, 정부 지원받아 '자폐 선별 AI 플랫폼' 개발



천근아

박유랑

의대가 정부 R&D 사업에 선정돼 자폐 선별 AI 플랫폼 개발에 들어선다. 의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년 공공연구성과실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실험실 단계의 연구성과를 실제 산업 환경에서 검증하고, 제품 등으로 확장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4월부터 시작한 연구는 2028년 12월까지 총 33개월간 수행되며, 지원받는 연구비는 총 13억 2350만원이다. 의대 천근아 교수(정신과학)가 총괄 연구책임자로, 의대

박유랑 교수(의생명시스템정보학)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업 ㈜휴레이포 지티브가 함께 참여한다. 연구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이미지와 발달행동 지표를 통합 분석하는 멀티모달 AI 기반 자폐 특성 선별 건강지원 플랫폼을 개발한다. 나아가 이를 의료현장과 필요한 가정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검사는 눈을 활영하는 것으로 5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비침습적 검

사다. 먼저 이미지는 중추신경계의 구조적·기능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조기 발견과 빠른 치료 시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먼저 이미지를 활용한 발달행동 평가 AI를 1차 의료기관이나 가정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팀은 해당 기술에 대해 이미 논문(JAMA Network Open)에 발표한 바 있고, 특허 기술(출원번호: 1020240051727(2024-04-17))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해

더욱 완성도 높은 AI 플랫폼을 개발한다. 연구팀은 기존의 알고리즘과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실제 환자에 적용하며 임상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AI 플랫폼의 진단 정확성을 높인다. 나아가 기술의 실제 사용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기술성숙도(TRL)를 7 이상으로 높여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구축한다. 1부터 9까지 단계로 나뉜 기술성숙도는 7이상일 경우 상용화 가능 단계로 평가한다.

강남, 의료기관인증평가 Ver.5.0 킷오프 행사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28일 병원 대강당에서 의료기관인증평가 Ver.5.0 준비를 위한 킷오프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과 조시현 진료부원장 등 병원 보직자 및 임상과, 간호국, 진료지원 부서원들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주관하는 의료기관인증제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는 제도로 4년마다 진행된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인증 평가가 처음 도입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4회 연속 인증을 획득하며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인정받았다.

오는 9월 예정된 의료기관인증평가는 기존의 '주기' 개념에서 벗어나 수시 개정 체계를 의미하는 'Ver.5.0'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법령 또는 정책

등 급격한 변화나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의료 환경에 즉각 반영된다. 특히 평가의 초점이 일회성 수검 준비가 아닌 실질적인 환자 안전 문화 정착으로 옮겨감에 따라, 환자 안전과 질 향상 활동, 감염 예방,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등을 위한 기준 또한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안성규 적정진료관리실장의 선창에 따라 전 교직원들이 다



함께 환자 안전과 성공적인 인증평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김용욱 병원장은 "우리가 매일 해오던 진료와 업무가 환자에게 정말 안전하고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매

순간 살피고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 병원을 구성하는 모든 교직원이 협력해 만들어내야 할 결과물인 만큼, 모든 교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상실기교육센터, 재난대응 인도네시아 시뮬레이션 강사 양성



의대 의학실기교육원 임상실기교육센터가 지난달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보건의료인 32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은 재난 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지 의료진이 직접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임상실기교육센터는 이론·실습·시뮬레이션을 통한 교육을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기본·고급 시뮬레이션 교육자 과정과 외상 응급생명구조 교육자 과정을 자체 설계·운영해 참가자들이 의료 시뮬레이션 교육자와 외상 대응 교육자로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추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교육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미국 NDLS 재단이 주관하는 ▲ 기본 재난생명구조(Basic Disaster Life

Support) 제공자 ▲ 고급 재난생명구조(Advanced Disaster Life Support) 제공자 ▲ 고급 재난생명구조 교육자(ADLS Instructor) ▲ 스웨덴 린셰핑대학교 주관 이머징 트레인시스템 삼급강사 과정(ETS SIC) 등 총 4종의 재난대응 분야 국제 자격을 취득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보건부와 인도네시아 심장협회가 주관하는 전문심장소생술(ACLS, 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 교육자 자격도 취득했다.

사업 책임자인 의대 정현수 교수(응급의학)는 "이번 과정은 현지 의료진이 교육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지속 가능한 교육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상실기교육센터는 다음달에도 인도네시아 재난대응 시뮬레이션 강사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 시뮬레이션 기반 고도화된 교육 기법을 바탕으로 글로벌 보건의료 교육 진행을 이어간다.

간호대, 미주동문 간담회 개최

간호대학이 지난달 25일 미국 시카고에서 미주 연세간호동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주 동문들과 간호대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현경 간호대학장의 환영사와 인사 영상으로 시작한 행사 1부에서는 오랜만에 마주한 동문 간 안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2부에서는 이현경 학장이 간호대 현황과 향후 비전을 발표했다. 개교 120주년을 맞이한 간호대의 역사와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한 동문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의 중요



성을 강조했다.

이어 동문발전기금 전달식이 이뤄졌다. 동문들은 간호대 교육과 연구 환경 개선, 미래 인재 양성 등을 위해 현장 기부와 약정을 통해 약 4850만 원의 기부금을 전했다.

이현경 간호대학장은 "멀리 떨어진

저 있음에도 변함없이 모교를 아끼고 성원해 주시는 동문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간담회가 동문들에게 따듯한 기억으로 남길 바라며, 앞으로도 동문들과 함께 연세간호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용인,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 리더 워크숍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23일 병원 4층 대강당에서 '2026년 질 향상(QI) 활동 및 환자안전 리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특강과 QI 활동·환자안전 교육으로 구성됐다. 전병남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료분쟁 예방 특강을 통해 '설명 의무 이행과 법적 책임'을 강의했고, 손민영 QPS파트장은 환자안전 특강으로 '더 안전한 병원을 향한 발걸음: 2025년 분석 및 환자안전 강화 플랜'을 발표했다.



교육생들은 특강 이후 부문별로 나눠 교육을 수강했다. QI 활동 교육은 활동 단계와 도구, AI를 활용한 QI 보고서 작성법, 활동 실습 등을, 환자안전 활동 교육은 환자안전 개념, 근본

원인 분석 툴킷(tool kit)과 실습 등을 다뤘다. 교육생들은 앞으로 1년간 분기별 환자안전 모니터링 조사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의료원, 다채로운 가정의 달 행사 진행

가정의 달을 맞아 의료원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세브란스병원 남자간호사회(회장 김진수)는 어린이날을 맞아 4일 어린이병원 1층 크라운 해태 리운지에서 어린이 내원객을 대상으로 선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아이들과 커다란 쿠션 주사위를 던지고 타이머를 눌러 어린이날인 55초에 멈추는 놀이를 하는 등 간단한 신체활동을 곁들였다. 남자간호사회는 매년 어린이날, 성탄절 등에 공연, 병동 방문 선물 나눔

등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달 22일 재활병원을 찾아 신체장애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직접 게임을 하면서 문화 체험을 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4일 환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병원은 외래를 찾은 미취학 아동과 병동에 입원한 환아들에게 쿠션형 애착인형 350개를 전달했다. 선물은 장난감 업체(쥬토리베)에서 병마와 싸우는 환아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기증했다. 또한 NICU에서는

환아의 발도장이 담긴 액자를 증정했으며, 어린이 병동에서는 환아와 보호자가 각각의 소망을 담은 소원카드 작성 행사를 진행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도 지난달 29일 병원 1층 로비에서 가정의 달 기념식을 진행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외래·입원 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조덕규 2부원장을 비롯해 병원 관계자와 후원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병동과 외래 내



원 환자에게 (주)토리베, 높은뜻하늘교회, (주)산중합건설, (주)동우화학, ISLA Global, 심플리움, 용세사돈클럽 등에서 후원한 선물을 전달했다. 특

히 올해는 도미노피자가 처음으로 후원에 동참해, 1층 야외에서 진행된 롤릿 이벤트에 참여한 어린이 40명에게 피자를 제공했다.

용인, 2026학년도 1차 전체교수미팅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28일 병원 4층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1차 전체교수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미팅에는 박진오 용인세브란스병원장과 박진영 1부원장, 조덕규 2부원장 등 약 100명의 교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박진오 병원장의 인사말

을 시작으로 2026학년도 1학기 신입 교원 소개와 신입 보직 교원 임명장 수여, 우수 교원 시상 순으로 이어졌다. 진료실적 우수상은 의대 노지웅 교수(용인 심장내과)와 황준규 교수(용인 신경외과), 외래 의사추천 지수(NPS) 우수상은 의대 김수정

교수(용인 혈액종양내과)와 손은진 교수(용인 이비인후과)가 수상했다. 의대 박윤수 교수(용인 감염내과)는 공로상을 받았다. 이어 홍지만 기획관리실장이 병원 경영현황, 암센터 건축 진행 경과 등을 발표한 뒤 자유토론이 이뤄지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한편, 용인세브란스병원은 매년 모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전체 교원이 모여 병원 발전을 도 있다.

재활병원, 가정의 달 체험캠프

퇴원 후 다시 찾아 '환자에서 연주자로' 무대 열어



재활병원이 8일 3층 강당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환아와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정서적 지지를 전하기 위한 체험캠프를 열었다. 이날 1부에서는 도토리 캐리커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함께하는 힐링음악 체험캠프가 이어졌다. 재활병원은 올해 1월 신년음악회부터 본원에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가 무대에서는 공연을 비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신년음악회에서는 뇌병변·시각 중박장애가 있는 박현호 군이 특별 게스트로 참여했고, 이번 가정의 달 음악회에는 재활병원에서 생후 7개월부터 7세까지 물리, 작업, 전산화인지 치료를 받았던 나성민 군이 연주자로 함께했다. 나성민 군은 강직성 뇌성마비로 왼손이 불편한 상황에서 재활치료를 위해 배운 트럼펫으로 현재 대학에서 트럼펫을 전공하고 있다. 나군의 어머니는 20년 전 재활병원 교직원 지휘자로 의료원 찬양축제에서 재활병원이 대상으로 수상한 무대에 함께했다. 공연에 앞서 나 군은 재활치료를 받고 성장해온 삶의 이

야기를 재활병원 환자 보호자에게 나눴다. 공연에서는 디즈니 메들리를 시작으로 'When you wish upon a star', '미녀와 야수', '라이언 킹' 등 환아들에게 친숙한 곡들이 연주됐다. 성악과 안무가 어우러진 무대, 트럼펫 솔로와 협연 무대 등이 이어졌다. 특히 공연 중에는 환아와 보호자들이 마리카스를 함께 흔들며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참여 시간도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연주를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리듬에 참여하며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보냈다. 조성래 재활병원 원장은 "이번 공연이 환자와 보호자들의 회복 과정에 따뜻한 격려가 됐기를 바란다"며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SK네트웍스의 후원과 (사)이노비 및 연주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소아재활주치의 의대 나동욱 교수(재활의학)는 폐회사를 통해 즐겁게 참여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격려하고, 공연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역량 강화 교육 성료

간호대 김모임간호학연구소는 지난달 28일 자유관에서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인 '연세건강이음'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서울시서대문구재가노인복지관 소속 생활지원사 및 기관관계자 총 70명이 참석했으며, 노인 돌봄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행사는 조은희 김모임간호학연구소장의 환영사와 김유리 서울시서대문구재가노인복지관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세브란스병원 오소현 간호사의 '기도폐색 대처 및 심폐



소생술 수행', '뇌졸중 조기 증상 판별 및 대응' ▲세브란스병원 박상요 간호사의 '우울감이 있는 어르신과 의사소통 방법' ▲김모임간호학연구소 지현주 교수의 'WHO 통합 돌봄모델' 등 현장감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조은희 소장은 "생활지원사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교육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를 위한 노인돌봄 인력 교육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 강남구청과 함께하는 건강콘서트

강남세브란스병원이 강남구청, 강남구보건소와 함께 '2026 명의와 함께하는 건강 콘서트'를 진행했다. 지난달 28일 대치2복합문화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올해 첫 건강 강좌에는 지역주민 100여명이 모였다. 이날 의대 김은주 교수(강남 정신건강의학과)가 '우리 아이 학업 성취와 정신건강'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의 후에는 참석자들이 자녀 교육과 학업에 대해 평소 궁금한 내용을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 강남구청, 강남구보건소와 건강강좌 '명의와 함께하는



건강콘서트'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최신 건강정보와 예방법, 치료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지역 주민이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강 관리 비결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회차별 150명 선착순 예약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강남구청과 병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시청도 가능하다. 다음달 24일에는 의대 안철우 교수(강남 내분비내과)가 청담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내 몸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호르몬 건강법'이라는 주제로 주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용인, 2025년도 의약품부작용 우수 보고자 시상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15일 병원 4층 대강당에서 '2025년도 의약품 부작용 우수 보고 부서 및 보고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우수 보고 부서 부문에는 약제팀 외래조제파트가 선정됐다. 우수 보고자 부문에서는 노민혜 간호사(입원간호팀 92병동파트)와 송윤

지 약사(약제팀 병실조제파트)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각 수상자와 부서에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다. 한편,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의약품 부작용감시소위원회를 통해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분석하고, 의심 의약품의 인과성

평가와 관리를 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이상사례 자발적 보고 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우수 보고자 및 부서를 포상하며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인원 미주동창 10만달러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김인원 미주동창(의대 65년 졸)이 최근 의과대학 신축기부금으로 10만 달러(1억4175만원)를 기부했다.

김인원 미주동창은 “모교가 한국 의료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계속 발전하고, 새롭게 지어질 의과대학이 후배들에게도 소중한 배움의 터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윤수명 전국24시콜화물 대표 1억원

연세암병원 발전기부금

윤수명 (주)전국24시콜화물 대표가 최근 연세암병원 발전기부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윤수명 대표, 김연순 여사와 금기창 의료원장, 이상길 연세암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수명 대표는 “우리 회사는 직원, 그리고 운송기사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며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연세암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2022년부터 매년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주시는 윤수명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환자분들의 치료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후원을 통해 윤수명 대표의 누적기부금은 5억원에 이르렀다.

박종웅 삼일기업공사 회장 1억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박종웅 삼일기업공사 회장이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응급실 환자 진료 프로세스와 공간 개선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종웅 회장은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세심한



진료에 항상 감사하고, 병원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장항숙 후원자 1억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후원금

장항숙 후원자가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장항숙 후원자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친절

하고 적극적인 진료에 감사하다”며 “병원을 다니다 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환경의 환자가 많은 것을 알게 돼 후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항숙 후원자는 이번 후원을 통해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소중한 첫 인연을 시작했다.

노모어피자 1억원



어린이병원 발전기부금
노모어피자대표이사 강병양(사진)가 최근 어린이병원 발전기부금 1억원을 전했다. 2024년 총 3억원을 약정한 후 두 번째 후원금이다.

강병양 대표는 “환아들의 치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전한다”며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이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더 큰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발전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The Great Future 미래발전위원이기도 한 강병양 대표는 이번 후원으로 약정금 3억원 중 2억원을 전했다.

김용배, 김종희 후원자 1억원

의료원 발전기부금

김용배, 김종희 후원자가 최근 의료원 발전기부금으로 1억원을 약정하고 2000만원을 먼저 후원했다.

김용배, 김종희 후원자는 “항상 환자들을 위해

의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세브란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연세의료원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김귀범 창원기전 대표이사 5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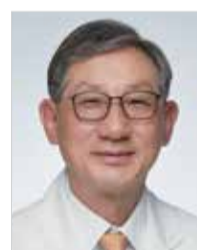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김귀범 창원기전 대표이사가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원활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응급

실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귀범 대표이사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의 더 나은 진료와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송동호 연세대 명예교수 5000만원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5020프로젝트)**
송동호 연세대 명예교수(의대 82년 졸)가 최근 의과대학 신축기부금(5020프로젝트)

으로 5000만원을 약정했다.

송동호 명예교수는 신축 의과대학 내 정신과학교실 역사관의 성공적인 조성을 응원하며 소중한 나눔을 실천했다.

한편, 송동호 명예교수는 새병원 건축기부금, 의과대학 발전기부금 등 꾸준한 모교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재외 동창 기부

재외 동창들의 기부 소식은 미주동창회와 UB(United Board)를 통해 전달되는 기부금으로 별도 코너를 마련해 소개합니다.

차대대학

- 장석렬 미주동창(의대 76년 졸) 발전기부금-110주년 미래기금 \$5000

간호대학

- 강민숙 미주동창(간호대 67년 졸) 발전기부금 \$1000
- 고영애 미주동창(간호대 72년 졸) 발전기부금 \$500
- 권명숙 미주동창(간호대 91년 졸) 발전기부금 \$300
- 김종남 미주동창(간호대 71년 졸) 발전기부금 \$500
- 김선학 미주동창(간호대 74년 졸) 발전기부금 \$300
- 김원자 미주동창(간호대 70년 졸) 발전기부금 \$3300
- 박연숙 미주동창(간호대 67년 졸) 발전기부금 \$500
- 박옥숙 미주동창(간호대 76년 졸) 발전기부금 \$50000

- 백선호 미주동창(간호대 64년 졸) 발전기부금 \$1000
- 오경숙 미주동창(간호대 90년 졸) 발전기부금 \$300
- 유근실 미주동창(간호대 70년 졸) 발전기부금 \$300
- 이미자 미주동창(간호대 62년 졸) 발전기부금 \$1000
- 이병자 미주동창(간호대 64년 졸) 발전기부금 \$10000
- 이효선 미주동창(간호대 90년 졸) 발전기부금 \$90
- 이혜옥 미주동창(간호대 75년 졸) 발전기부금 \$500
- 이희자 미주동창(간호대 63년 졸) 발전기부금 \$1000
- 임애경 미주동창(간호대 67년 졸) 발전기부금 \$1000
- 임영순 미주동창(간호대 72년 졸) 발전기부금 \$1000
- 전영숙 미주동창(간호대 60년 졸) 발전기부금 \$1200
- 조경자 미주동창(간호대 73년 졸) 발전기부금 \$1000
- 최지숙 미주동창(간호대 61년 졸) 발전기부금 \$1000
- 허정도 미주동창(간호대 61년 졸) 발전기부금 \$300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사로 전하지 못하는 기부 내용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000~3000만원 기부

의과대학

- 김건호 우리금융에프앤아이 대표 연구기부금-통합 1000만원
- 나중환 나중환신경외과의원 원장(의대 76년 졸) 신축기부금 1000만원
- 박창호 동문(의대 76년 졸) 신축기부금 1000만원
- 세브란스근골격연구회 정형외과학교실 건축기부금-역사관 2000만원
- 우오현 SM그룹 회장 비뇨의학교실 발전기부금 2000만원
- 이영식 동문(의대 76년 졸) 신축기부금 1000만원
- 이호정 연세로마피부과의원 원장(의대 90년 졸) 신축기부금(5020프로젝트) 1000만원
- 의대 신경진 교수(법의학) 신축기부금 1000만원
- 최준호 후원자 신경외과학교실 발전기부금-뇌혈관외과 1000만원

치과대학

- 차대 신유석 교수(보존과학) 발전기부금-110주년 미래기금 1500만원

세브란스병원

- 최정훈 주식회사 이도 대표 사회사업후원금 1000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 김경록 연세봄이비인후과 대표원장(의대 07년 졸) 이비인후과 발전기부금 1000만원
- 조영동 후원자 소화기내과 발전기부금 1000만원

연세암병원

- 구동완 후원자 발전기부금 1000만원

심장혈관병원

- (주)아주 사회사업후원금 1000만원

어린이병원

- 김기주 가족 어린이병원 발전기부금 1000만원

다시 보는 재상봉 이모저모



1 2 3

1. 의대 25주년 동문들이 의대 1층에 모여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 의대 50주년 동문 단체사진
3. 의대 50주년 동문이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다.



1 2 3

1. 치대 25주년 동문이 과거 함께 근무하던 치대병원 직원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 치대 재상봉 동문 단체사진
3. 치의학박물관을 관람 중인 치대 50주년 동문들



1 2 3

1. 간호대 25주년 동문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2. 간호대 50주년 동문 단체사진
3.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인 간호대 25·15주년 동문



「게시판」

2026년 노동절을 맞아 우리 교직원들의 수상이 잇따랐다.

윤영남 대외협력처장이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2026년 노동절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명의의 산업포장을 받았다.

산업포장은 산업현장에서 일자리 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 노사협력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정부 포상이다.

윤 처장은 인재경영실장 재임 당시 노동자 권익 향상을 통해 기관을 넘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철원 원무팀

장은 1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 철원 팀장은 서비스혁신팀장, 총무팀장, 원무팀장을 역임하며 노동자 권익을 향상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의대 배성훈 교수(강남 이비인후과)가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100차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다인 선도연구자상을 수상했다. '다인 선도연구자상'은 이비인후과 전체 분과에 소속된 학회 회원 중 최근 5년간 주저자로 출간한 논문을 대상으로 피인용지수(Impact Factor)와 인용 횟수(Citation)를 합쳐 가장 높은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배 교수는 해당 기간 SCI(B)급 논문

37편을 발표했으며 총 피인용지수는 114점을 기록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의대 은영민 교수(강남 소아청소년과 심장분과)가 최근 국제 성인선천성심장병학회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은 교수는 유일한 아시아인 임원으로 한국과 아시아 지역을 대표해 연구자 간 소통과 학술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동시에 은 교수는 최근 대한심장학회 성인선천성심장병연구회 회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2028년 2월까지다.

의대 정승호 교수(용인 신경과)가 최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

린 2026년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2회 이명식 교수상을 수상했다.

정 교수는 당뇨병 치료제인 DPP-4 억제제의 파킨슨병 발병 및 진행 억제 가능성을 밝힌 연구 공로를 인정받았다.

의대 조병우 교수(강남 정형외과)가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2026 대한정형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분과별 최신 의료기술 발표' 세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조병우 교수는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TKA)에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해 환자 개개인의 해부학적 구조에 최적화된 수술 가이드를 구현하

는 기술을 구축했다. 환자별 뼈 구조를 반영한 마커 시스템을 통해 수술 준비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별도의 모니터 없이 증강현실을 통해 수술 부위 위에서 가이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환자 안전과 수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로 선정됐다.

치대 김준영 교수(구강악안면외과)가 최근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선도연구자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악교정수술 및 구순구개열 환자의 맞춤형 치료와 AI 정밀 진단, 약물 관련 골괴사증 연구 등을 통해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의 디지털 혁신과 난치성 질환 치료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